



이름:

WEEK 25

Jun 16

사무엘하 17장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은 순식간에 궁을 차지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시 압살롬에게 충고하기를,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지쳐있으니 얼른 따라가면 다윗을 죽이고 남은 자들의 충성을 얻어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후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압살롬이 직접 전장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이 아니라 다윗의 충복 후사의 의견을 듣게 하셨습니다(14절). 자신의 모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히도벨은 낙향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23절) 이것은 다윗의 외마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었는지 사무엘하 15:31을 찾아 써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마디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8장

본장에서는 마침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왕권을 놓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군은 완패하고,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왕은 전쟁의 승리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들 압살을 사랑한 아버지 다윗의 눈물의 고백을 써 보세요. (33절)

Jun 17

사무엘하 19장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 1) 시므이: 사울의 친족으로 다윗의 피신길을 저주했던 사람 (삼하 1:5-8)
- 2) : 다윗의 도피 기간 내내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음으로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
- 3) : 마하나임으로 피난한 다윗왕을 공궤했던 80세의 늙은이

사무엘하 20장

압살롬의 반란 이후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여(1절). 더 이상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그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어려울 판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 선 것입니다. 결국,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의 도움으로 세바는 죽음을 맞이하고 반역은 진압됩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더 깊어질 수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다윗도, 그 어떤 공신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Jun 18

사무엘하 21장

본장은 다윗의 시대에 있던 3년 대기근에 대해 기록하는데, 이 기근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1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집안에 일곱남자를 내 주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왜 무고한 후손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지 묻고 싶어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울의 후손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흥년을 해결하였던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을 묵상해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본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는 일생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18편에 함께 기록된 2-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Jun 19

사무엘하 23장

본장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찬송합니다(1-7절).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 하는데(8~39), 다윗의 영광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용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과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였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많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용사는 누구인가요? (39절)

*다윗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한 충신 우리아의 이름이 명단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이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배신으로 갚아 죽인 다윗을 고발합니다. 다윗은 이런 대접과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람의 힘이나 숫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골리앗과 싸우던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다윗은 자기 힘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무엇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였나요?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다윗이 어떤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가진 유한한 힘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도구로 삼은 것은 위험합니다.

Jun 20

열왕기상 1장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지자 왕위 계승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미 압살롬의 손에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은 그 다음의 아도니아에게 가는 듯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외모도 준수했고 아버지 다윗의 신임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6절).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나요?

열왕기상 2장

본장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 솔로몬의 왕권확립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나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개인적 유언은 사실상 솔로몬에게 주는 것이었지만, 후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다윗의 말이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볼 것입니다.

Jun 21

열왕기상 3장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메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는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9,11절)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한 솔로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4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백성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20). 나라의 경계도 확장되었고(21), 백성들은 평안히 살았습니다(25). 또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3:13),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4:29)을 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고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방 모든 나라에 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24)